

## 관람의 기술과 존재의 자리: 임상빈 <남극대륙>

진 휘 연 / 미술사학자

<오지에서 발견한 '나'의 존재성>

임상빈은 동시대 문화 기술력에 근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라보는 자연을 포함한 환경의 여러 이미지를 조작함으로써, 친밀함 안에 숨어있는 낯설음을 드러내왔다. 일상적인 듯 느껴지지만 특별하거나, 평범해 보이지만 이상한 장면이 주는 아이러니는 회화와 드로잉이 투입되고 다양한 이미지의 층위를 결합시키는 디지털 콜라주 형식을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작가의 감각적인 화면은 사실이 아닌 이질적 환경을 생생하게 만들어냄으로써 관객들에게 피사체와의 거리를 애매하게 느끼도록 만들었고, 궁극적으로 시각적 환영과 경험의 확장을 선사했다.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찍고, 컴퓨터상에서 정교하게 편집하여 가상의 장면을 만드는 방식으로 그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모든 회화작품을 한 벽에 설치한 이미지를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시간과 사조, 지역에 따라 나뉘어져 있던 작품들은 하나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탈 관습적, 탈 제도적 장면을 만들었다. 이후 임상빈은 사람이 복적이는 대도시나 마천루의 크기나 모양을 바꾸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면서 다양한 혼성적 결합을 제공해왔다.

그런데 이번 개인전에서 작가는 인적이 극히 드문 남극으로 장소를 옮겼다. 펭귄들이 밟고 있는 얼음 조각위로 펼쳐진 냉랭한 남극의 기운이나 마치 대리석이나 추상 회화의 패턴처럼 보이는 빙하들의 이미지에서 이전에 느끼던 시각적 결과물이 던지는 아이러니를 더 이상 느낄 수는 없었다. 대신 그것을 마주하는 작가의 존재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얼음바다를 바라보는 작가의 안경이나 망원경, 발끝이나 날리는 스카프는 이전 작품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소품이다. 작가의 눈을 대신한 광학 도구들이 남극의 신비한 광경을 담아내는 하나의 프레임처럼 작동하고, 작은 보트, 스키의 일부는 이질적이지만 사람의 존재를 강조해준다.

그의 작품들은 실제 그곳에서 촬영한 사진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화 속 삽화나 만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는데, 이유는 남극의 장엄함보다 작가가 쓴 안경, 날리는 스카프자락, 망원경을 잡은 손, 사진기 등이 너무 구체적이고 강하게 부각되어서였다. 이미지의 결합은 이런 소품들로 인해 통일성을 상실하거나 이전 작품들에 비해 과장되거나 허술해졌다. 진실과 거짓의 결합이 균형을 잃자, 환영, 눈속임은 쉽게 드러나고 이미지의 허구성은 강조되는 대신 화면을 이끄는 것이 진짜 같은 거짓이 아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자 주체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작가의 존재를 상징하는 소품들은 남극의 실체를 가리거나 우리의 시선을 잡아끄는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이런 시도는 이구아수 폭

포 연작에서도 신두리 모래사구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사람의 흔적은 없지만, 그의 아이콘과 같은 안경, 고글 등은 계속 등장한다. 보기를 강조하는 이런 장치들은 관람의 기술뿐 아니라, 주체의 존재성, 나의 있음을 드러내고, 바라봄으로써 관계 맺게 되는 타인, 세계와의 상호성을 지시하기도 한다.

인류는 기원전부터 시각 기능과 보기에 대한 많은 실험을 거듭해왔다. 눈은 자연스레 사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쉽게 환영을 갖는데, 평면 안에서 입체감을 느끼거나 간단한 기계장치에 의해 과장되게 깊은 공간감을 느끼기도 하고, 초점을 변형시킴으로써 착시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눈속임을 이용, 서구에서는 여러 기계장치를 개발해왔고 단순하지만 동영상의 효과를 만들기도 하고, 이미지가 거꾸로 비쳐서 눈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포착하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후 카메라와 영사기의 발달로 이어졌다. 인간의 눈은 매우 정교하지만 쉽게 속고 스스로 가상의 장면을 곧잘 만들어낸다.

바라보기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궤적을 같이 해왔고, 관람의 방식은 바라보는 주체와 피사체, 환경과 인식의 관계를 꾸준히 변화시켜나갔다. 특히 20세기 심리학자 라강은 나의 밖에 드러난 이미지들과 내면의 나를 연결 지으면서 주체성을 형성해간다고 주장했는데, ‘이미지’를 ‘바라보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주체가 구성되고, 이때 상상력과 나르시시즘이 동시에 발달하게 된다. 주체는 나와 밖의 끝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기에 가변적이면서도 열려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시각연습은 단순히 사물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나와 세상을 연결하고 동시에 ‘나’에 대한 구체적인 형성에 필연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 시선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주체 형성에 가장 주된 부분이다. 그런데 주체는 시선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응시의 대상, 즉 피사체가 되고 바라봐지는 것들로부터 목격되거나 관찰되는 자리에도 선다. 주체의 포기할 수 없는 관람의 위치는 실은 내가 의도할 수 없는 응시의 대상으로서의 존재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복합적인 주체와 시각의 관계를 남극은 잘 담아내고 있다.

남극은 누군가에게는 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끝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상대적 관점은 시선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한다. 광활하고 쓸쓸한 남극의 독특한 자연은 인간을 압도하던 독일 낭만주의 화가 프리드리히의 거대한 송고미와 맥을 같이 하지만, 그런 거대함에 비해 왜소한 인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은 그저 두꺼운 얼음덩어리에 불과할 것이다. 즉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존재성만이 이곳의 의미를 생산해낸다.

대륙이 끝난 이 땅은 얼음이라는 유동적인 물질로 대체되었고, 인간 활동이 제한적인 이런 곳에서도 주체는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불특정한 시선의 대상이 된다.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타자로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서로의 존재가 인정되는 특별한 관계는 황량한 오지에서도 성립되고, 상호성 안에서 우리는 결국 ‘나’를 발견하게 된다.

<정체성의 불완전함을 자극하는 자연의 무게>

‘나’는 온전히 모든 것의 시각적 주인일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 관찰되거나 피사체로 존재하는 나는 여전히 관람의 주체이기를 희망하지만, 그 존재의 상대성, 가변성, 불완전함을 더욱 부각시키게 됨을 안다.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그것을 경험하는 매순간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이 강조되는 시점과 그것의 부분적이고도 불완전함이 동시에 부각되는 순간의 아이러니가 임상빈의 남극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작가는 오랜 관람의 역사성을 작품에 부분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관찰의 기술과 분리될 수 없었던 이미지제작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있다. 자연이라는 타자의 존재가 주는 압도적 힘 아래에서 인간의 작고 부분적인 주체성을 인식하게 되는 임상빈의 작품은 외로운 그곳에서 그 모든 광경의 관람의 주체이자, 동시에 피사체가 된 자신사이에서 존재의 모호함을 느끼게 한다. 부각된 안경을 통해 보기의 역사와 그 주인으로 자처했던 작가에 대해, 시각의 주체이자 피사체로서, 온전하고자 하지만 일부로서 생존하는 우리 모두의 존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관객들도 그런 분리되면서 합치되는 순간을 이번 전시와 그의 작품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리라 본다.